

## 간척의 자취 - 강화섬

### The Tideland Reclamation in the Kanghwa Island

박 상 현\*

Park, Sang-hyun

강화도는 김포 반도의 서편에 위치하며, 이들 중간에 흐르는 염하의 좁고 빠른 조수 물살과 해안 기슭에 나즈막이 솟구친 암벽들은 옛부터 천연의 요새이다. 경기만을 향해 내달리는 마식령산맥의 기개는 염해로 잦아든 후 강화섬에서 솟구쳐 올라와 북쪽으로 부터 고려산, 혈구산을 일구고, 남쪽 끝에 이르러 해발 468m의 마니산을 일으켜 세운 후, 바다 건너 삼산도와 교동도까지 펼쳐진다. 또한, 한강유역에서 공급되는 진흙과 모래는 섬 주변 해안에 조석간만차에 의하여 간척지로 탄생할 천혜의 조건을 이룬다.

세계를 정복한 막강의 몽고군은 어찌 이 조그만 섬하나를 39년간이나 범하지 못하였을까? 고려는 1232년(고종19년) 이곳에 10만호의 고려 군신을 이주시키고, 전란의 와중에서도 넓은 궁성과 사찰을 짓고 호화로운 연등행사와 연회까지 벌였더니, 그 여유스러운 비밀이 더욱 궁금하다. 그 비밀의 열쇠는 섬 주변의 빠른 물살과 지형을 전술적으로 잘 이용한 점도 있다지만 긴 세월동안 많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간척지를 개발하여 농토로 이용한 선인들의 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강화 천도 이후, 고려의 권신 최우는 1238년(고종 25년) 각 고을의 군인들을 징발하여 연안에 제방을 수축하였고, 1248년 북방의 유민들도 이주시켜왔으나, 간척지에 바닷물이 밀려들어 경작이 어렵게되자 이곳에 피를 심고 거두게하여 주립을 면하게 하였다. 또한, 1254년(고종 41년)에는 강화섬 북쪽 해안인 송해면 승천포 부근에 고려 별궁과 함께 제포(梯浦)둑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역사

적 기록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방조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지역은 강화읍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지점인 301호 국도의 우측 해안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지금은 높다란 제방과 철책으로 구축된 해안 진지로 변화되고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세부적인 조사가 어렵다.

강화섬 서쪽 해안인 하점면 망월리에서 시작하여 남쪽의 창후리 개포에 이르는 만리장성둑도 고려시대에 축조되었으며, 그 후에 증축하여 현재는 30여정보의 농지가 조성되어 경작되고 있다. 또한, 강화섬 서편의 삼산면(석모도)에 있는 상주둑은 상주산 동편에서 남쪽으로 석모리까지 4km의 제방으로서 상고시대에 송가도 상주산에서 북으로 교동까지 연속되었다고 하며, 중세에는 남쪽 간석지인 매음도에 어류정둑을 만들고 이를 송가도와 연결하여 현재의 석모도를 이루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간척 역사의 유물들은 후대의 개보수 공사에 따라서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랜 전란의 상처는 염해의 물줄기 곳곳에 남아있다. 강화도 파천시, 고려 왕은 풍랑을 피한 후 건너라는 뱃사공 손돌(孫覿)의 말을 뿌리치고 그의 목을 벤후 건너려 하였지만 풍파를 만나서 뜻대로 건너지 못하였다. 이를 뉘우치고 제사를 지냈으나 손돌의 한이 남아서인지 그의 기일인 매년 음력 10월 26일 이곳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곳은 수로폭이 800m 정도로 이 부근에서 가장 좁은 해협이지만 물살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선박의 왕래가 거의 없으며 나무 뒤편 봉우리에는 손돌의 넋에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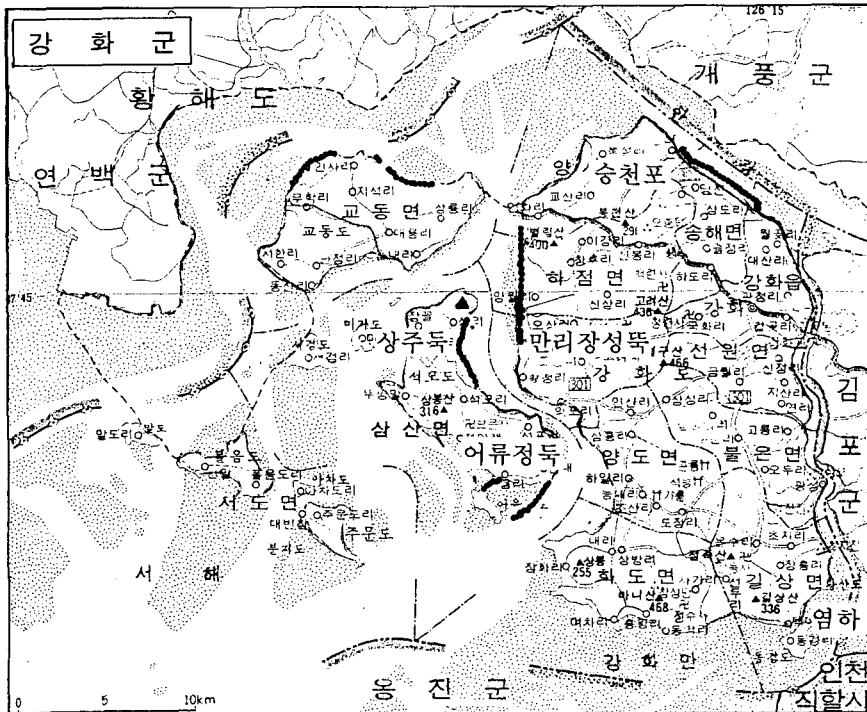
\*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랑곳 하지않는 작은 초소 하나가 보일 뿐이다. 손 들목 맞은 편이 있는 광성보(廣城堡)는 고려시대에 쌓은 외성을 1618년(광해군 10년)에 보수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의 격전장이었다. 이의 돈대(墩臺)는 조선조 숙종때(1679) 승병 8,000명과 주민들이 40일간 축조한 원형의 성곽으로서, 이 안에는 포대가 설치되었으며 1745년 안해루란 성문을 개축함으로써 완전한 석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광성돈대의 절벽 아래에는 해안을 따라서 작은 석괴로 쌓은 낮으막한 둑이 1km정도 쌓여져 있으며, 이의 내측 중간부분의 깊은 곳에는 작은 소류지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좁다란 논자락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는 강화 곳곳에 조성된 소규모 간척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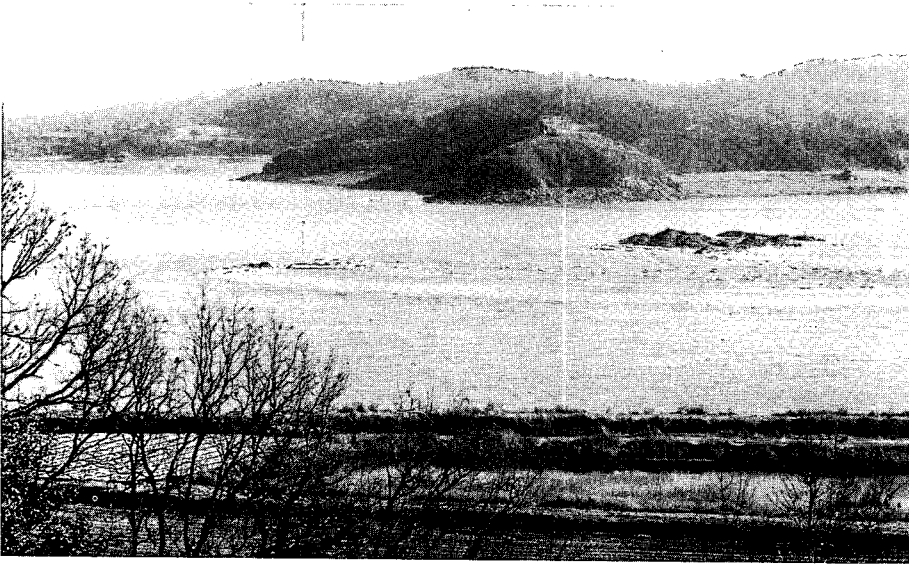
우리의 간척 역사와 기술에 대한 문헌은 아주 적은 편이지만, 조선말 정약용은 목민심서 천택편(牧民心書 川澤編)에 방조제를 해언(海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바닷가에 조수를 방지하는 제방을 쌓고 안에 기름진 농지를 만들면 이것을 해언(若濱海捍潮內 作膏田 是名海堰)이라 한다. 그의 茶山錄에는 방조제 축조에 있어서 석재의 운반은 기중기를 이용토록 하며, 방조제 설치구역 중앙에 미리 삼각대 구조의 한대(捍臺)를 설치하여 조수의 충격을 완화토록 하는 등 방조제 축조 기술을 짚막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선조들이 일구어놓은 옛 기술의 편린에 불과하다.

강화의 간척사업은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54년 하점면 중심평야는 높이 3m 길이 600m의 둑이 축조되어 이 지역의 한해를 극복하게 되었다. 또한, 강화농지개발조합은 1962년 정부와 유엔의 FAO 지원에 의하여 강화섬 남동쪽인 염해의 입구에 있는 황산도에 간척지 240ha를 조성한 바 있으며, 이 중 60ha는 UNTID사업으로 1963년 부터 3년간 관개배수 및 제염시설을 설치



강화지역의 제방유적지



손돌목과 강화 간척지

하여 간척지의 수도작 대체작목과 운작재배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1982년에는 인근에 있는 산업교육원에서 공무원의 교육과 연구에 활용된 바 있다고 한다.

앞으로, 초지진 나루터와 김포를 잇는 교량이 1997년경까지 설치될 계획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강화대교의 확장공사와 함께, 이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이라 한다. 강화섬 인근에는 현재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사업이 추진되어 토목인들의 꿈을 키우게 한다. 또한, 강화섬은 관개배수 기술자들에게 오랜 전란속에서 이룩한 간척과 농지조성의 역사를 음미하게 하고 국민적인 안보와 식량의 확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화도문화재, 1991. 경기도 강화군  
 동아세계대백과사전(1권), 1991. 동아출판사  
 역주 목민심서(5권), 1985. 다산연구회  
 한국의 간척, 1995. 농어촌진흥공사

## 약 력

## 박 상 현



197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졸업  
 1982.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학석사  
 1982. 농어업토목 기술사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수리시험 수석연구원  
 KCID 관개배수실행분과위원장 /  
 편집·학술분과위원  
 ICID 관개배수실행분과 위원